

K리그 시상식, 챌린지는 없었다

〈프로축구 2부리그〉

클래식 위주의 시상식 중계 ‘그들만의 잔치’

108표 중 지역팀 배분 1장…투표방식도 논란

K리그 전체의 발전이라는 달콤한 말과는 달리 그들만의 리그였다.

지난 3일 프로축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K리그 대상 시상식을 위해 클래식(1부) 14개팀과 챌린지(2부) 8개팀 등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는 축구 보물들이 모였다.

출범 30년을 맞아 프로축구연맹은 화려한 새출발을 예고했다. 승강제는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사상 첫 도입’이라며 연맹이 특히 자랑하던 것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도 승강제는 성과로 언급됐다. 승강제가 더 박진감 넘치고 경쟁력 있는 K리그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말대로 승강제 첫째 K리그 대상 시상식은 클래식과 챌린지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큰 무대인 것 같았다. 그럴 듯하게 보였던 잔치는 김신욱(울산)에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를 끝으로 차갑게 식었다. 김신욱에게 MVP 트로피가 넘겨진 뒤 시상식 중계는 종료됐다. 사실상 잔치가 끝났다.

카메라가 꺼진 2부 시상식장에서는 후보 호명도 없이 수상자들이 한꺼번에 불려나와 상을 받았다. 당당하게 시상식을 찾았던 챌린지의 쟁쟁한 선수들은 들러리가 되고 말

았다. 연맹은 관중수가 증가했다고도 큰소리 쳤지만 챌린지 팬들은 K리그 잔치에서 배제됐다.

그들만의 시상식 결과는 예상처럼 ‘K리그 올스타 군단’ 상무와 경찰축구단의 독식이었다. 챌린지 리그를 대표해 밀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발걸음이었다. 물론 상을 받은 선수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챌린지 선수들이 꼼꼼히 관찰되어 지고 그 실력을 인정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선택했고 최종 결과는 기자단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 108표가 행사된 투표, 가까이에서 챌린지 리그를 지켜보고 선수들 면면을 알고 있는 챌린지팀 지역에는 단 한 표씩만 주어졌다.

연고자 없는 경찰을 제외하고 챌린지 리

그는 광주·상주·안양·충주·수원·고양·부천을 기반으로 꾸려졌다. 클래식 위주의 취재 시스템 속에 22개 팀을 꼼꼼히 살펴볼 수 없는 현실, 결국 단순 수치와 이름값에 의존한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광주에 이어 올 시즌 대구·대전의 강등이 확정됐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던 프로축구 연맹의 몸집 줄이기의 칼날은 시민구단들을 겨누고 있다. 돈싸움에서 밀리는 시민구단들은 내부(지자체)의 차가운 시선과 외부(프로연맹)의 전시행정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다.

K리그의 흥겨워야 할 잔치에서 챌린지의 대표 선수들은 승강제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 차라리 시민구단만의 리그를 만들자는 주장이 술깃하게 다가왔던 모순의 잔치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가 생활체조로 탈바꿈했다. 청소년들이 지난 9월 명랑대첩축제장에서 열린 ‘강강술래 국민생활댄스 경연대회’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나코디자인그룹 제공)

강강술래, 국민댄스 진화

강강술래는 음력 8월 한가위달 보름 달 밝은 밤에 부녀자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동글게 원을 그리며 즐기는 민속놀이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경계하기 위해 인근의 부녀자들을 모아 횃불을 피우고 군무(群舞)를 하며 노래를 부르며 한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남도지방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인 강강술래가 지역문화와 건강이 결합한 생활체육형 댄스(체조)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강강술래, 현대적 해석 체조로 재

나눠 6분여 동안 진행된다. 단계별 자세한 동작은 홈페이지(www.ggsl.or.kr)에서 볼 수 있다.

전신운동인 강강술래 체조는 30분을 운동할 경우 204kcal가 소모되는 유산소성 운동이다. 이는 새천년 체조(186kcal)보다 에너지 소비율이 10%가량 더 높아 청소년 다이어트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강술래, 생활체조로 전국 확산 = 진흥원은 지난 9월 명랑대첩 축제장에서 ‘국민생활댄스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 마

힙합·프리스타일과 결합해 현대감각 체조로

진흥원, 플래시몹·경연대회 열어 보급 확산

창초=전남도와 (재) 전남문화산업 진흥원은 지난 2011년 3월 강강술래의 춤 동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해 ‘국민생활 댄스 강강술래’(이하 강강술래 체조)를 개발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힙합, 프리스타일 등 다양한 춤 장르와 전통 강강술래의 주요 동작을 결합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여가활동, 응원 안무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국민체조와 새천년 체조 등의 단점을 보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강강술래 체조는 준비 리듬을 타는 진강강강술래를 시작으로 중강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남생이 놀아라→고사리 꺾자→대문열기→손치기 발치기→이유리 1번 포트의 스페인, 독일, 벨기에, 스위스 중 한 팀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또한 진흥원은 최근 학생과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UCC 경연대회를 마련해 호응을 받았다.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cia-ggsl)에 올린 음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댄스와 율동을 DSLR 등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11월 말까지 제출받았고,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재) 전남문화산업 진흥원 관계자는 “강강술래 체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청소년과 국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과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8강 목표 이뤄다오”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 공개 행사에서 박종우가 시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3번 포트 확정

브라질·네덜란드·이탈리아 역대 최악의 조 탄생 가능성

2014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방식과 포트 배정이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조추첨식을 사흘 앞둔 4일 브라질의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4개의 각 포트에 배정된 국가를 발표했다.

1번 포트에는 개최국 브라질과 10월 17일 기준 FIFA 랭킹 상위 7개 팀(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페인, 독일, 벨기에, 스위스)이 배정됐다. 칠레와 에콰도르, 코트디

부아르, 가나,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7개 국가는 2번 포트에 포함됐다.

한국은 예상대로 북중미, 아시아 팀들과 한 포트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일본, 이란, 호주가 3번 포트에 들어간다.

4번 포트는 유럽 9팀만으로 꾸려졌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잉글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러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조추첨: 7일 새벽 1시(한국시간) 브라질 코스타 도 사우이페 조추첨 포트 배정



시아, 프랑스가 4번 포트에 속했다.

개최국과 강팀들이 1번 포트에 들어가고 한 조에 유럽팀을 3팀 이상 배정하지 않는 대륙별 안배 원칙이 재확인되는 등 조추첨 방식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가 2번 포트에 자동 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유럽 국가로만 이뤄진 4번 포트에 남았다. FIFA는 조추첨 가장 첫 번째 순서로 4번 포트 9개국 가운데 한 팀을 뽑아 2번 포트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 포트 팀 수가 8개로 같아진다.

2번 포트에 이동한 유럽팀은 1번 포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비유럽 팀과고만 한 조에 묶이게 된다. 대륙별 안배 원칙 때문이다. 2번 포트의 남미팀인 칠레와 에콰도르도 같은 이유로 1번 포트의 스페인, 독일, 벨기에, 스위스 중 한 팀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2.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연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